

## 독특한 시각에서 재해석한 조선 최대의 논쟁

김기현의 《조선조를 뒤흔든 논쟁(상·하)》을 읽고

이상수 | 《한겨레 21》 기자

조선조의 봉당정치를 당파싸움으로 보는 시각은 식민지 유산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봉당정치가 미국의 양당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사림은 미국의 민간두뇌집단과 그 역할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런 발상을 토대로 사단철정 논쟁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한국인 혼자서는 일본인 열사라도 당해내지만, 한국인 열사람이 모이면 일본인 한사람조차 못 당한다.” 이유는? 파벌싸움 때문이다. 한국인은 머리도 좋고 우수하다. 그런데 ‘국민성’이 파벌 싸움을 워낙 좋아한다. 조선시대의 사색당파를 봐라. 임진왜란을 당한 것도 그 때문이다.

### 봉당정치에 대한 오래된 오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필자도 고등학교 시절 어떤 선생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그 때는 물론 고개를 끄덕거렸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이런 논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많다.

이런 논리를 일본인들이 퍼뜨렸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가 퍼뜨렸느냐가 문제는 아니다. 그런 논리를 스스로 받아들인 사람이 문제다. 그럼 다음과 같은 주장은 어떨까.

“미국은 곧 망할 것이다. 매년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파를 갈라 파벌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당으로 똘똘 뭉쳐도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판국에, 배웠다는 사람들이 수십년을 두패로 나뉘어 당파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미국의 미래는 자명하다.”

중학생만 돼도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양당제는 오늘날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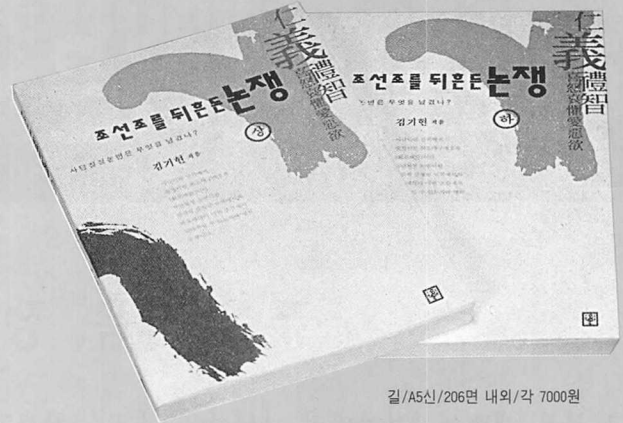
문이다. 복수의 정치 집단이 경합을 벌임으로써 부패와 정체를 방지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건 오늘날 상식에 속한다.

김기현씨(성균관대 강사)의 《조선조를 뒤흔든 논쟁》(길)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조선조의 사림에 접근한 독특한 연구서다. 그의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다. “양당구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임은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조선조의 정치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식인 집단이 두패로 나뉘어 당파싸움만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왔는가?”

### 사림과 미국 민간두뇌집단의 공통점

‘조선의 지식인들이 공리공담으로 날밤을 지새고 당파싸움이나 일삼다가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식의 역사 해석이 일본 제국주의 어용학자들의 시각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조선의 봉당정치에 대해 한국인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미국의 싱크탱크와 조선 사림을 비교해 확실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겉보기엔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정치집단이 미국을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 보면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은 ‘싱크탱크’라 불리는 전문 지식인 집단이다. 관련단체가 아니라 자생적 민간 연구소 형태를 취하고 있



길/A5신/206면 내외/각 7000원

는 미국의 싱크탱크는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땐 직접 국정에 참여해 활동하는 ‘인재 대기실’ 노릇을 한다.

지은이는 민간 최고의 지식인 집단이 국정방향을 둘러싸고 자율적으로 경합하며 공직생활과 연구활동을 교대한다는 점 등이 미국의 싱크탱크와 조선의 사림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양당제라는 현실정치의 물밑에서 ‘싱크탱크’라 통칭되는 헤리티지재단이나 카네기재단 등의 민간 두뇌집단이 정책과 철학을 제공하는 구조는, 조선에서 봉당정치라는 현실정치의 물밑에서 ‘사림’이라 통칭되는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민간 두뇌집단이 정책과 철학을 제공하는 구조와 일치한다. 그런 그들이 빚어낸 정치는 어떤 수준이었는가.

“영남학파나 기호학파의 어느 한 당이 조선의 국정 운영을 책임 맡던 시대에는 모든 공무의 투명성이 기초 중의 기초였다. 심지어 임금의 행차 중에 식사한 매끼의 수라상에 쓰인 각 음식의 재료와 양, 그리고 그릇마다 들어간 비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을 편찬한 한영우 선생은 서문에서 ‘나는 이렇게 철저하고 상세한 국정보고서를 아직 본 일이 없다’고 하면서 (...) ‘정조시대의 기록문화가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올 때 나는 그저 <무섭다>고 대답한다’고 말한다.”

“기록을 철저히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가 정당하고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지은이는 조선조의 “저 ‘무서운’ 투명성과 책임성을 낳은 소프트웨어가 바로 퇴계와 율곡에 의해 각각 정립된 한국 성리학”이라고 말한다. 이런 시각에서 지은이는 사단철정 논쟁이라는, 조선조 최대의 논쟁을 쉽고 친절한 어조로 풀어내고 있다.●